

우즈 교통사고 후 첫 인터뷰



우즈

“오른 다리 잘라낼 뻔
이젠 풀타임 힘들다”

“언젠가 투어에 복귀하겠지만 풀타임으로 뛸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산에 오르고, 정상을 밟는 일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교통사고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상히 털어냈다.

우즈는 “언젠가 투어에 복귀하겠지만...”이라며 현장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그러나 풀타임으로 뛸 수는 없을 것이다. 벤 호건이 그랬던 것처럼 1년에 몇 개 대회를 골라서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LA 인근 교외에서 자동차를 직접 몰고 가다 차량이 전복돼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우즈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가능성이 반반 있었다. 한 쪽 다리만 갖고 퇴원할 수도 있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한 뒤 “(절단 위기를

“언젠간 투어 복귀하겠지만
정상 밟는 일 기대하지 못해
불행하지만 받아들이고 있다”

넘긴 뒤) 내가 두 손을 다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뭐든지 던져 보라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리만 괜찮다면 여기 골프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산에 오르고 정상을 밟는 일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그는 “허리 부상을 당했을 때는 한 번 더 에베레스트에 올라야 할 필요가 있었고, 나는 해냈다. 하지만 이젠 에베레스트에 다시 오를 수 있는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행하지만 그게 내 현실이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혔다.

골프 선수로서 필드 복귀 가능성과 함께 강한 의지를 결집했지만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처음으로 최근 골프클럽을 잡은 자신의 모습을 3초짜리 영상에 담아 직접 공개했던 우즈는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다.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신경을 더 낮게 해야 한다. 5번이나 허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치료도 해야 한다”며 투어 복귀까지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임도 내비쳤다.

우즈는 이번 주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12월 3일(한국시간) 바하마 올버니 골프 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이벤트 대회인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는 우즈가 초청한 20명만 출전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女 최고의 별...박민지 vs 임희정 vs 장하나

男골프선 10대 3관왕 김주형 유력
각 2승 올린 박상현·서요섭도 주목

2009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동아스포츠대상이 ‘마스크 팩 신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과 손잡고 새롭게 출발한다.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은 1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펼쳐진다. 동아스포츠대상은 5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남녀농구·남녀배구·남녀골프)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종목별 올해의 선수를 선정한다. 탁월한 실력과 함께 뛰어난 인성까지 갖춘 선수만이 올해의 선수 영예를 차지한다. 5개 종목, 총 8명의 최고 선수들에게는 기념 트로피와 함께 황금열쇠가 주어진다.

올해 필드 위에서 가장 빛난 남녀 최고의 별은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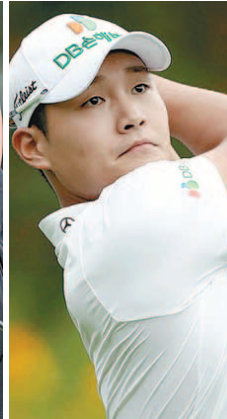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투표에는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김주형



박상현



서요섭



박민지



임희정



장하나

서 활약한 남녀 각 30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남자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후보에는 코리아투어 대상과 상금왕, 평균타수 1위 등 3관왕을 달성한 김주형(CJ대한통운)을 비롯해 올 시즌 각각 2승씩을 수확한 박상현(동아제약), 서요섭(DB손해보험)이 이름을 올렸다. 2002년 생으로 올해 만 19세인 김주형은 코리아투어 최초로 10대 3관왕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었다. 대상 포인트 3, 4위에 랭크된 함정우(하나금융), 김한별(SK텔레콤)도 올해의 선수로 뽑히기에 손색없는 활약을 펼쳤다.

여자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경쟁은 박민지(NH투자증권)와 임희정(한국토지신탁), 장하나(비씨카드)의 3파전이라고 볼 수 있다. 박민지는 올해 6승을 거두며 대상, 다승, 상금왕에 올랐고 KLPGA 투어 최초로 시즌 상금 15억 원 시대를 열었다. 대상, 상금 각 2위와 평균타수 3위에 오른 임희정, 생애 첫 평균타수 타이틀을 품에 안고 대상, 상금 각 3위에 랭크된 장하나 역시 발군의 기량을 과시했다.

2승을 거둔 이소미(SBI저축은행)와 KLPGA 챔피언십 2연패를 차지한 박현경(한국토지신탁) 역시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무래도 무게추는 세 명에게 기울다.

2009년 배상문(키움증권)과 서희경(SBS골프해설위원)이 동아스포츠대상 남녀 프로골프 초대 수상의 영광을 안은 가운데 지난해 김태훈(웹게시), 김효주(롯데)까지 그동안 한국 프로골프의 술한 별들이 동아스포츠대상을 수놓았다. 김주형과 박민지 등 남녀를 불문하고 올해 후보에 오른 선수들은 모두 첫 수상 영예를 노린다.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수상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KFA 대한축구협회 KBO 한국야구위원회 K리그 한국프로축구연맹 KDL 한국농구연맹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OVO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농구협회 한국여자프로농구협회 sportstoto 1879 하이원리조트 JEONJU PAPER

‘오징어게임’, 한국 작품 첫 미국 독립영화상 ‘고섬 어워즈’ 트로피 수상



11월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고섬 어워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오징어게임’의 주역들. 왼쪽부터 연출자 황동혁 감독·주연 이정재와 정호연·제작사 싸이런픽처스 김지연 대표. 뉴욕(미국) | AP·뉴시스

“12년 전 비현실적이라던 작품, 가장 유명한 쇼가 됐다”

황동혁 감독 “기적” 소감에 박수갈채
작가 김훈의 딸 제작사 김지연 대표
“전세계 열광...완벽한 팀워크 덕분”

“12년 전 비현실적(이야기)이라던 작품은 지구상 가장 유명한 쇼가 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상인 고섬 어워즈 트로피를 품에 안은 연출자 황동혁 감독이 말했다. 상기된 표정의 그는 11월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치프리아니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제31회 고섬 어워즈 시상식 무대에 올라 장편 시리즈물의 최우수 작품상 격인 ‘40분 이상 획기적 장편 시리즈’(Breakthrough Series-over 40minutes) 부문상을 거머쥐고 “2009년 ‘오징어게임’ 각본을 썼을 때 몇몇 사람들은 너무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12년 만에 만든 이 쇼는 지금 지구

상에서 가장 유명한 쇼가 됐다. 이젠 기적이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의 연출작 ‘오징어게임’은 이날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고섬 어워즈를 수상하는 기록을 썼다. 미국의 독립영화 지원단체 IFP(Independent Filmer Project)가 주관하는 고섬 어워즈는 지난해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을 최고 여배우상 후보에 올리기도 했다. 황 감독은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맙다는 말 뿐이다. 우리 쇼를 사랑해줘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이를 이어받은 ‘오징어게임’의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의 김지연 대표도 “기적”을 말했다. 소설 ‘칼의 노래’의 작가 김훈의 딸로, 아버지의 작품 ‘남한산성’을 영화로 만들기도 한 그는 “9월17일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가장 큰 기적은 한국말로 된 이 작은 쇼에 전 세계가 보내준 크나큰 성원이었

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황 감독은 정말 천재인 것 같다. 스태프와 배우들이 각자 자리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다”면서 ‘오징어게임’의 스태프와 출연진에게 공을 돌렸다.

주연 이정재와 정호연도 이날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이정재는 ‘신작 시리즈 부문 최고 연기상’ 후보였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정호연은 ‘획기적 논픽션 시리즈’ 부문 시상자이기도 했다. 이미 모델 활동을 하며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 오래 머물렀던 그는 영어로 “훌륭한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미국 다큐멘터리 ‘필리 디에이’(Philly D.A.)에 트로피를 주었다.

‘오징어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건 경쟁에 뛰어든 이들의 이야기이다. 공개 이후 9월23일부터 11월 7일까지 46일간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 자리를 지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장우진(왼쪽)-임종훈이 30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막을 내린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남자복식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사진제공 | 대한탁구협회

男 복식 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선수권 은메달

한국선수 첫 결승...아쉬운 금 실패

장우진(26·국군체육부대)-임종훈(24·KGC인삼공사)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한국선수로는 첫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장우진-임종훈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남자복식 결승에서 크리스티안 카를손-마티아스 팔크(스웨덴)에 세트스코어 1-3(8-11 13-15 13-11 10-12)으로 패했다. 비록 금메달은 놓쳤지만, 한국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탁구는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선 동메달만 8개를 따냈다.

2017년부터 호흡을 맞춘 장우진-임종훈은 2018년 코리아오픈과 그랜드 파이널스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한국탁구를 대표하는 남자복식조로 자리 잡았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8강과 4강에서 중국조를 연파하며 중국의 남자복식 4연패를 저지한 카를손-팔크는 스웨덴에 30년 만에 남자복식 금메달을 안겼다.

1세트를 내준 장우진-임종훈은 2세트에는 4차례 듀스 점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패했다. 3세트 반격에 성공한 뒤 여세를 몰아 4세트에도 시소게임을 펼쳤다. 그러나 10-10 듀스 상황에서 잇따른 공적 실패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장우진과 임종훈은 국제탁구연맹(ITTF)과 인터뷰에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이라는 무대를 밟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세계챔피언에 오른 스웨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